

“전형적 악역 NO” 박훈이 만든 ‘아무도 모른다’ 최강 빌런

배우 박훈(39)은 지난 21일 종영한 SBS 월화드라마 ‘아무도 모른다’(극본 김은향/연출 이정홍)에서 섬뜩한 악의 축 백상호 역할로 열연했다. 박훈은 백상호를 자신이 마음껏 연기 욕망을 펼친 ‘첫 악역’이라고 말했다. 대사없이 강렬한 이미지로만 존재했던 전작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과 달리, 살아 움직이는 악인 백상호는 보다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았다. 이 기회를 만나 박훈은 물 만난 듯 생생한 악인으로 변신했다. 비록 정교한 악인을 만드느라 악몽을 꾸는 고생을 하긴 했지만, 노력으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보였다. 박훈은 지난 2007년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로 데뷔한 이후 각종 드라마를 통해 역할 스펙트럼을 넓히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드라마 데뷔작은 ‘태양의 후예’(2016)이며, 이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헌신을 위협하는 캐릭터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해치’ 주연에 이어 ‘녹두꽃’ ‘60일, 지정생존자’ ‘왓쳐’에 특별출연했으며 ‘아무도 모른다’를 통해 주연으로서 활약했다. 현재 방영 중인 ‘더 킹 영원의 군주’에 특별출연했다.

-종영 소감은.

▶엄중한 시기에 방송되기도 했고,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드라마이길 바랐는데 기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것 같다. 감사한 마음 뿐이다. 사회적 분위기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극에서 악의 축인데 작가나 감독의 주문이 있었다.

▶일단 대본이 많이 나와있어서 후반부의 스토리라인을 어느 정도 알고 촬영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악역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셨는데, 사실 공식 홈페이지 악역이라고 쓰여있다.(웃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악역으로 연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입체적으로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나.

▶상호를 조금 이중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다. 캔커피를 고급스러운 잔에 담아 마시는 것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외모도 정석에서 조금 빛나간 스타일로 꾸몄다. 전형적인

호텔 이사장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았다. 그런 모습들이 쌓여 아이들이 만났을 때 밝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섬뜩하게 느껴지도록.

-캐릭터 표현 등 연기 호평에 대해서는.

▶연기적인 부분을 봐주신 것 같다. 배우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잖나. 예를 들어 전작 ‘알함브라’는 이미지로 긴장감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대사가 없는 캐릭터였다. 내 입장에서 다음 작품에서 대사가 많은 역할을 맡아서 내 자신을 뛰어넘고 싶은 사명감, 책임감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백상호 역할은 내게 첫 악역이었고 그 전의 내 모습과는 다른 걸 보여드린 것 같다. 그걸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이런 노력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 배우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악역을 연기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진 않나.

▶백상호라는 악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백상호의 과거가 어떨지 많이 고민해봤다. 백상호 캐릭터의 과거가

우리 작품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의 경계선에서 당신은 어떤 어른이냐는 질문. 가족에게 버려지고 어린 시절에 만난 어른들이 착한 어른이었다면 악이 되는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다. 그런 면에서 나는 백상호를 악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어른을 만나서 잘못된 성장을 한 사람이다. 그런 과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 악몽을 많이 꿴다. 자다가 깨곤 했다. 백상호의 트라우마, 학대를 받은 과거들이 불쑥 튀어나왔다. 자칫 잘못하면 이 캐릭터의 악행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가 중요했다.

-배우로서 성취감을 느낀 장면이 있다.

▶밀레니엄호텔 식구들이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완전한 가족도 아니면서 가족같은 느낌이 있다. 이걸 현장에서만 만드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배우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촬영 전에 만나서 아이디어 회의

를 하고 리허설, 합을 맞춰본 후 감독님에게 보여드렸다. 그런 준비를 통해서 백상호라는 인물이 가진 이상한 면, 밀레니엄 식구들의 색깔이 묘하게 나온 것 같다. 예를 들어 응접실 장면들이 마음에 든다. 배우들도 인물들을 대타일하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강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 해줬다.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 서로 다른 캐릭터에 대해 토론도 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해보는 게 재미있었다. 연습해온 것을 현장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다.

-‘아무도 모른다’는 어떤 의미로 남을까.

▶이 작품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다. 연극배우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후 매체에 들어와서 앵글 안에서 연기를 하니 예전과 달리 제약이 느껴졌다. 사전준비가 이번에는 사전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마음껏 움직이면서 백상호가 가진 동물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썼다. 현실적으로 도와준 동료, 스태프들이 있었다. 스태프들이 오히려 더 해보라고 응원해줬다. 시작은 내가 했지만 완성은 함께 한 느낌이다. 좋은 피드백을 얻은 것은 이 팀 모두의 덕분이다. ‘첫 악역’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이런 것도 해왔으니 다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김환희 “‘날찾아’ 행복 촬영 시청자 사랑 잊지 않을 것”

‘날씨가 좋으면 찾으면 찾아가겠어요’ 김환희가 애정 가득한 종영 소감을 전했다. JTBC 월화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이하 ‘날찾아’)가 지난 21일 종영했다. 깊은 감성으로 울분 안방극장을 파스함으로 물들였던 드라마로 남았다. 특히 복현리의 공식 에너지이저 임휘 역을 연기한 배우 김환희에게도 뜨거운 이목이 집중됐다. ‘휘며들었다’(휘에게 스킨머신었다)라는 귀여운 신조어를 탄생시킨 만큼, 김환희는 영동 발랄한 소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며 “다 비켜!”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좋아하는 선배를 유턴 없는 직진 사랑을 숨기지 않는 모습 등 언제나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이야기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그뿐만 아니라 오빠 임은섭(서강준 분)에게 숨겨온 진심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용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일렁이게 만들었다. 이처럼 김환희는 안방극장에 웃음과 눈물을 선사한 연기 천재의 재능을 또 한 번 입증해낸 동시에 드라마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물로 맹활약을 펼쳤다. 마지막까지 빛나는 활약으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 김환희, 배우로서 앞으로 그려나갈 또 다른 모습에도 많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김환희는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통해 ‘날찾아’를 떠나보내는 소감을 전했다. 먼저 그는 “지금까지 ‘날찾아’와 임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휘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마음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 배우 분들을 만나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함께 호흡을 맞춘 동료들과 시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될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다부진 포부를 마지막 소감에 마무리했다.

위근우, 김희철 故 설리 발언에 “논리 비약” vs 김희철 “고인 무기로 쓰지마”



그를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77억의 사랑’에서 故 설리와 구하라를 향한 악플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을 두고 위근우 칼럼리스트가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김희철도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원일 예비신부’ 김유진PD 학폭 의혹→‘부럽지’ 하차+통편집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인 김유진 PD가 집단폭행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두 사람이 ‘부러우면 지는거다’ 하차를 결정했다. 지난 2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이하 ‘부럽지’)에 출연 중인 김유진 PD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

“살아생전 고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77억의 사랑’은 ‘연예인들이 죽음으로 몬 대한민국 악플의 실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김희철이 설리와 구하라를 떠나보낸 심정에 대해 말했다. 김희철은 이날 방송에서 “두 친구와 친했는데 안타깝다”고 입을 열며, “그 일을 겪고 가장 화가 나는 건 요즘에 성별을 갈라서 싸우는 거다. 남자들은 성희롱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여자들은 여자 망신이라는 말로 두 친구를 모욕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서로 탓할 거리를 찾더라. 서로 먹이를 물어뜯으러 다니고서는 추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후 위근우 칼럼니스트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희철의 해당 발언을 두고 “남성 악플러, 여성 악플러

둘 다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 근거로부터 ‘성별 간 갈등’에서도 남녀 둘 다 잘못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남녀 악플이 동일하게 가해졌다 가정해도 실제로 기사나 연예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오프셜한 공격으로 가시화된 건 결국 남성중심적 담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말이 이전 없는 고인의 진심을 대변하는 게 대신 안되며, 그럴수록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에 김희철은 해당 글에 댓글을 달며 “아저씨, 악플러나 범죄자가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하냐. 성별을 떠나 범죄 지지하면 그냥 범죄자”라며 “나도 그들과 친했던 동료들은 아직도 먹먹하고 속상해서 두 친구 이름을 함부로 못개내고

조심히 언급을 하는데 아저씨는 뭘데 고인 이용해 이따 글을 쓰는거냐. 맥들 싸우는데 고인을 무기로 쓰지마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한 김희철은 21일 밤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김희철 갤러리에 글을 게재하며 “어제 두 친구들에 대해 악플러 성별 불분하고 욕을 해대더니 세상을 떠난 후 ‘여자가 죽었네, 남자가 죽었네’ 서로 탓하는 걸 얘기했었다. 근데 여기에 기자란 작자가 고인을 무기 삼아 자신의 생각을 윗가랄부하는게 역겨웠다. 살아생전 고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번 들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라며 “작년 두 친구들을 떠나보내면서부터 연예인에 큰 미련도 없어졌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상담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악플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통해 선처없이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 뉴질랜드서 집단폭행 김유진 PD만 사과 한마디 없었

다. 당시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8~10명으로, 작성자에 따르면 B씨와 C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김 PD가 자신을 슬리퍼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 이어 얼마 후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작성자를 한 주차장으로 오라고 협박해 불러냈고, 작성자는 주차장에서 맞다가 노래방에서도 폭행을 당했다. 작성자는 8~10명의 가해자가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고 자신은 머리와 복부 허벅지 등 부위에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김유진 PD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부럽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유진 PD와 이원일 셰프 커플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이에 22일 이원일 셰프의 소속사는 뉴스1에 “이원일 셰프의 예비 신부인 김유진 PD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라며 “죄송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가장 먼저 깊은 상처를 받았을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며 “온라인 상에 게재된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 중이나 사안의 사실을 떠나 해당 글을 게재하신 작성자 분을 찾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 PD가 출연 중인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 방송 프로그램은 이번 하차하도록 하겠다”라며 “어려분께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부럽지’ 제작진도 이날 ‘이원일 셰프 커플의 하차와 함께, 시청자 분들의 불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후 방송분에 대한 편집을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 PD는 ‘부럽지’에 출연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김유진 PD는 유명 연예인 닳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뉴스1